

---

# 부산 자동차부품업 경영 동향 분석

---

2018. 9

- 재무제표 분석
  -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
- 정책적 시사점

## < 개 요 >

### 1. 조사 목적

- 최근 국내 완성차의 산업의 부진으로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 이에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
### 2. 조사범위 및 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193개체의 2016년, 2017년 재무제표
  -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 대상
- ※ 보고서 내 통계치는 조사대상(193개체)을 기준으로 작성
- ※ 자료출처 및 분류코드: 나이스평가정보(주),  
표준산업분류코드 C30(자동차부품 및 트레일러 제조업)

### 3. 조사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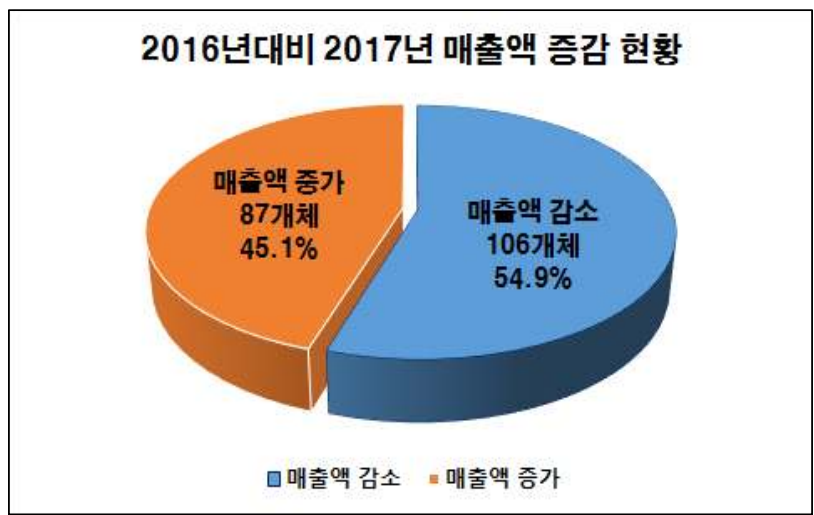
- 2017년 부산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들의 전체 매출액은 5조 4,359억원, 전년 대비 2.3% 감소
  - 매출 감소업체는 106개체, 이들의 매출액만 놓고 보면 매출액 감소율은 9.9%
  - 차종에 따른 판매실적 차이, 신차 효과 등으로 기업별 증감수준 상이, 수출 비중 높은 경우 각종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 발생
- 2017년 영업이익은 1,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.5% 감소
  - 원청업체로 부터의 단가인하 압력 지속, 원자재 가격 인상, 경쟁업체와의 출혈 경쟁 등으로 수익성 악화 구조 형성
  - 수익성이 높은 수출은 보호무역주의 강화, 해외 저가제품과의 경쟁 확대, 완성차 업체의 해외 조달 비중 확대 등으로 감소세
  -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고정비용의 증가가 영업이익 부진에 영향
- 2017년 당기순이익은 1,120억원, 전년 대비 41.0% 감소
  - 상위 2개사 실적 제외하면, 전년 대비 91.2% 대폭 감소
  - 대출상환 압력,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, 환차손 등이 영향
- 정부의 정책적 대책 마련 시급
  -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완성차 판매 진작을 위한 대책 지속 강화
  -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공정거래, 상생발전 추진 강화
  - 경쟁력 유지를 위한 R&D 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
  -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한시적 재도입
  -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연장 및 금리 인하

I **재무제표로 살펴본 최근 실적**

1. 매출액

2017년 부산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**전체 매출액은 5조 4,359억원**  
 2016년 5조 5,651억원 대비 **2.3% 감소**  
**매출액 감소 기업은 106개체(54.9%), 매출감소 업체들만 놓고 보면 9.9%감소**

- 매출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액은 2.3% 소폭 하락, 이는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판매 부진, 사드보복조치 등에 따른 해외수출 감소 등에 기인
  - 전체 매출액 규모는 기존에 고정적으로 발주되는 물량과 일부 기업에서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상쇄되면서 급격한 감소폭을 보이지는 않음
  - 하지만 업체수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87개체 (45.1%)인 반면, 감소한 기업은 106개체(54.9%)로 많았으며 특히,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율은 △9.9%로 전체 매출액 감소율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을 기록함



- 이는, 경차·중소형차의 수요 감소 등 차종에 따른 판매실적 차이, 신차 출시 등으로 인해 기업별로 영향이 상이했고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경우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으로 판단됨

## 2. 영업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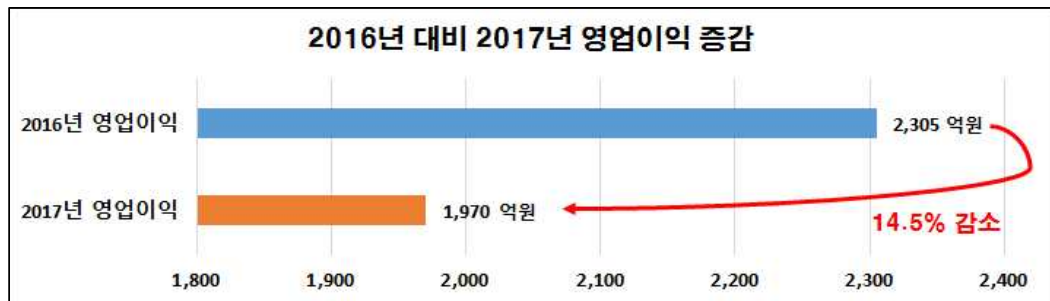
### 매출액 감소율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 심각

2017년 부산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**전체 영업이익은 1,970억원**으로

2016년 2,305억원 대비 **14.5% 감소**

영업이익이 **감소한 기업은 111개체(57.5%)**, 이들 중 **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32개체**

- 부산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2017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.5% 감소하였으며, 동기간 매출액 감소율이 2.3%인 점을 고려할 때,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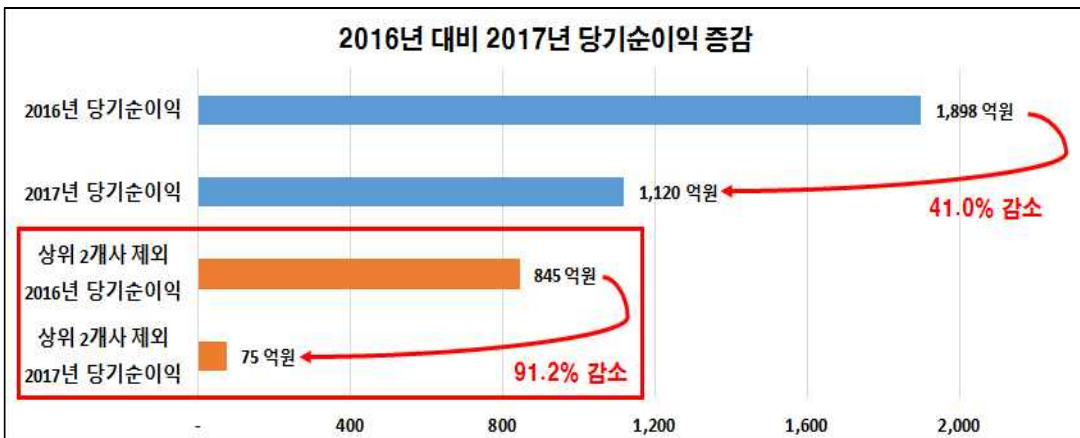


- 영업이익이 심각하게 감소한 이유는 원청업체로 부터의 단가인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인상, 경쟁업체와의 출혈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임
  - 또한 수익성이 높은 수출에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여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, 해외 저가제품과 경쟁 확대, 완성차 업체의 해외 조달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
  - 한편,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고정비용의 증가가 영업이익 부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
-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업체가 32개체(16.6%)로 나타나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시점임

### 3. 당기순이익

**2017년 전체 당기순이익은 1,120억원, 전년 대비 41.0% 감소**  
**상위 2개사 실적 제외하면, 전년 대비 91.2% 대폭 감소**  
 고용·R&D·금융 부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 존립자체의 위기 우려 확산

- 부산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1.0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심지어 상위 2개사의 실적을 제외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91.2%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

- 업체별로 살펴보면, 2017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한 업체는 75개체(38.9%)인 반면 감소한 업체는 118개체(61.1%)
-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악화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**금융비용 부담 확대**가 지적됨.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인상, 대출상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
- 한편, 상위 2개사의 실적을 제외할 경우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**91.2% 대폭 감소**한 것으로 나타남. 이는 전반적으로 **영업이익이 악화**된 가운데 일부 기업의 **법정관리**로 인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
- 한편 최근 **환율변동성 확대**에 따른 환차손이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에 **부정적 영향**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, 일부 기업에서 투자자금 확보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

## II 정책적 시사점

- 자동차부품 산업은 고용인원만 보더라도 1만 4,250명에 달하는 지역 주력 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- 하지만 실제 지표상으로 들어나듯이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부진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황임.
- 특히 원청업체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력이 지속돼 저가수주와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, 원자재 가격 상승, 고정비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 존립 자체에 위기감과 산업 붕괴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음

### 【정부의 정책적 대책 마련 시급】

- **완성차 판매 진작을 위한 대책 지속 강화**
  - 현재 부품업계가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완성차의 부진이 부품업계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기 때문임. 따라서 완성차 실적 회복의 선행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, 대외 무역장벽 극복 등의 노력이 필요함
- **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공정거래, 상생발전 노력 강화**
  - 일방통행식 단가 인하 관행을 철폐해 부품업계의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함
- **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**
  -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R&D 자금 지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, 세제지원을 비롯한 전 방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
- **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시적 재도입**
  - 위기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“기업구조조정촉진법”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, 위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
- **시중은행의 대출 만기연장과 금리 인하**
  -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, 시중은행의 여신건전성 강화로 대출상환 압력과 대출 금리가 증가하고 있음. 따라서 부품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은행권의 상생협력이 필요함